

광주 U대회 유치 왜 실패했나

짧은 준비기간·러 영향력 극복 못해

유럽 러 동정표 차단 실패 주원인

시민 여론 결집땀 재도전 가능성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도시발전을 기대했던 광주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광주가 2013 U대회 유치를 실패한 원인은 국제대회를 개최할만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 유럽의 동정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부재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실사부터 러시아에 뒤진 광주=광주시는 시민 20만명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유치절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1일 FISU총회에서 실사평가 점수를 열렬한 김종량(FISU집행

위원) 한양대 총장의 전언에 따르면 카잔이 400점 만점의 현지실사 평가에서 368점을 얻은 반면, 광주시는 353점을 받아 1차 관문에서부터 고배를 마셨다.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와 숙박시설이 원인이었다. 카잔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53개에 달한 데 비해 광주는 22개 시설뿐이었다. 광주시는 현지 실사에서 숙박시설 신축계획을 발표했지만, 카잔은 무려 20여 개의 호텔을 보유하는 등 준비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김 총장은 "실사점수가 집행위원들

의 표심에 큰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만 우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서 러시아 카잔에 비해 열세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짧은 준비기간=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8일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국내 유치도시로 결정되면서 본격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2월 유치 신청서를 FISU에 제출하고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권을 가진 집행위원국을 일일이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5개월여 동안 숨가쁜 일을 소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준비기간은 대회 유치를 세번째 도전하는 카잔이 무려 6년 동안 대회를 준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특히 카잔은 그간의 유치활동으로 확고한 고정표를 확보한데다 동정표 또한 상당수 흡수했다. 더구나 광주는 국제도시로서 인지도가 낮아 유치활동

에 적잖은 부담이 됐다.

◇유럽 '동정표' 단속 실패 및 러시아 정부 지원=광주시의 득표전략은 당초와 달리 빗나갔다. 그만큼 최종 득표 결과는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광주의 복안은 2차 투표에서 카잔 한 유럽표를 끌어들이며 개최지 결정권을 따낸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1차 표결에서 카잔이 과반을 넘는 득표로 승부를 확정, 단 한차례 승부로 광주를 따돌렸다. 결국 유럽표가 카잔으로 쏠린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영향력도 여전히 막강했다. 지난 29일 파리에 머물면서 카잔의 유치활동을 격려했던 푸틴 총리는 카잔의 유치활동을 격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를 만난데 이어 저녁 상담수 흡수했다. 더구나 광주는 국제도시로서 인지도가 낮아 유치활동

에 적잖은 부담이 됐다.

시각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재도전에 나서거나 유치를 포기하는 양자택일 뿐이다.

하지만 시가 재도전에 나설 것인지 아직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1일 "지금으론 재도전을 생각할 겨를도 경황도 없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온 만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2015년 U대회 재도전 여부

“성원 보내준 시민들에게 죄송 석고대죄하고픈 침통한 마음”

■유치 실패 광주시 입장

“석고대죄하고 싶은 침통한 마음 뿐입니다”

2013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광주 유치활동 실무 총괄했던 김운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광주시 경제부시장)은 1일(한국시각)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 동안 뒤를 돌아볼 시간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실무총책을 맡았던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그동안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성원에 단 1%도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패장의 변을 대신했다.

그는 “평가는 아니지만 대회 유치를 세번째 도전하는 러시아 카잔이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도전한데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집행위원들의 동정심을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며 패인을 분석했다.

김 부시장은 “러시아의 푸틴 총리가 U대회 유치를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크렘린이 전면에 나선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의 지원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들어 한달 반만에 대통령이 U대회 지지를 표명했고, 재외공관에 U대회 유치를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광주시의 국제대회 도전은 인천, 대구, 부산에 비해 한참 뒤진 것이다”며 “광주시가 진즉 국제대회 유치를 도전했다면 이런 쓰라린 경험도 미리 했을 것이고, 큰 성과를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아쉬워했다.

브뤼셀=윤영기기자 penfoot@



1일 새벽 3시(한국시각) 벨기에 브뤼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장에서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이 2013 하계 U대회 개최지로 '카잔 러시아'를 발표하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카잔 대표단은 환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광태 광주시장, 유정관,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브뤼셀=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날아든 소식은 너무도 안타까웠다. 광주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꿈꿔왔던 시민들은 허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려울 것이다. 수고 많았던 광주시민들에게 우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렇다고 실패할 일 아니다. 실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거나 자칫 패배감을 부추기는 어려서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뜻뜻하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특별기고



강정애

피고 또 살핀 연후에도 안심하기 어려운 게 국제 행사 유치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경우엔 시 작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격적인 준비 기간이 5개월에 불과했고, 정부 차원의 관심이 나 지원도 러시아 카잔보다 늦게

U대회 유치 실패는 좋은 약이다

나 적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한 고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많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경험을 잘 살리고 교훈을 얻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인프라를 꾸준히 갖춰 나가야 한다. 계획하고 있거나 소망하고 있는 일들은 반드시 원안대로 완성해야 한다. 각종 체육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숙박시설 역시 확충해야 한다. 우리들의 관심과 지원도 특정 시기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심으로 지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

야 한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성공의 열쇠가 있다.

특히,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이 필요하고 상당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제적인 일에는 최고의 지식인 집단인 대학이 이런 일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냉철한 분석과 다 음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명확한 교훈, 그리고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지식인들이 지혜를 모아 야 한다. 전남대학교가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지원단(CNU-YES Group·Yeosu Expo Support Group)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치밀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 제 고장을 사랑하고, 합심 협력하는 따스한 가슴을 지닌 광주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당국자들은 시민들의 지력을 믿고 심기일전하기를 바란다. 경험이 부족했을 뿐 지혜와 지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광주를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보다 더 큰 일을 해낸 셈이다. 지금 오히려 희망의 색이 보이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광주시민들이 하나의 공동의 제로 합심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브뤼셀에서 날아든 안타까운 소식에도 한줄기 희망의 빛을 찾게 된다. <전남대학교 총장>

Advertisement for GA Engineering Construction Co., Ltd.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construction site and text: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인간과 환경, 지식을 평가하는 전문기업', '주식회사 GA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일동'.